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15일(수)

장 소 대법원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1 |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0인 서면동의) | 9 |
| 2. 서류제출요구의 건 | 11 |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자를 지정하기 전에 참고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시간은 핵심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분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미애 주진우 위원님.

○나경원 위원 2명씩은 해 주시지요, 2명씩은 한 3분씩 해 가지고 2명씩으로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두 분 두 분씩 할까요?

○나경원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시지요.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주진우 위원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보니까 엄희준, 남욱만 신청이 돼 있고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빼는 것입니까?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 신청할 때 이화영 증인과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었고요, 이미. 그리고 어제 버젓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재판에 이화영의 변호인을 사전에 미리 김현지 씨가 접촉해 가지고,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접촉을 해서 서로 사건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변호사 계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임하라고 요구까지 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났습니다. 설주완 변호사의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까? 불러서 확인해야지요, 당연히. 같은 반열이지 않습니까? 이화영·김광민 반열과 설주완·김현지의 반열이 뭐가 다릅니까?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고요.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일제히, 아침에 보니까 방송 나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나라고 얘기할 정도면 통화한 사실은 거의 반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제 실드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방어논리가 잘못된 것이 어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석에서 황당해 하는 표정 보셨습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수사 관계자의, 수사를 받는,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의 변호인과 접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미리 정보를 빼내서 공범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봐 가면서 수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옳다구나 해서 증인 불러서 물어봐서 문제가 안 되는 것 입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증인을 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 수사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여기 있는 남욱, 엄희준 다 빼야지요. 빼려면 다 빼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같이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이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습니까?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속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탑승시켰습니까? 그런 의혹도 없고 그런 의혹이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왜 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제발 법사위 국감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께서 자꾸만 이 법사위를 정쟁화시키고 계신다.

우리는 대한민국국회, 국민을 대리해서 법사위가 피감기관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사무를 감사하는, 직무를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국민의힘이 작년 한 해 내내 했던 그 하나의 전략, 이재명 죽이기 전략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면서 왜 이제는 또 멀쩡한 부속실장을 가지고 국감장을 정쟁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윤석열 식, 멀쩡한 사람을 수사로 가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윤석열 식 특수수사 방식이다.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먼저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의 산물입니다.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서 오늘의 현장검증과 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그런 형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이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거기다 더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또 무죄 만들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증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의 현장검증도 부결시키고 이번에는 아예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추가한 증인 신청은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입니다. 왜냐?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마디로 위증 교사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금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진술을 압박하고 바꾸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기상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2심 재판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정당성도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의 증인 신청 받아 주시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의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미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저희가 언급하

니까, 지금 급발진 버튼을 저희가 누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저께는 백해룡 경정을 갑자기 법무부장관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하는 방법으로 지금 동부지검에 파견해서 마약 수사를 하라 하고,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중언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저희는 궁금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반드시 나와서 왜 이재명의 보좌관으로서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이 법사위에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두 분 다 하셨고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두 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동욱 위원 증인에 대한 얘기를 왜 두 분만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비교교섭단체 한 분 하셨고…… 민주당에서 그러면 두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실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오늘은 엄희준·남욱,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들을 뺏습니다. 그런데 엄희준·남욱, 다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야 합니다.

엄희준이 누구입니까? 남욱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측의 사주를 받아서, 윤석열 측 검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검사 엄희준. 그리고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지요. ‘검찰이 얘기한 대로 해서 이재명에게, 김용에게 돈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남욱.

남욱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김용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주었다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검찰이 이것도 조작했어요. 그렇게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희준, 얼마 전에 쿠팡 관련해서도 나왔지요.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무죄로 내리라고 위에서 명령을 내린 엄희준, 이런 사람들이 검찰 맞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누르게 한 엄희준 등 출석 요구해서 낱낱이 그 범죄 현장을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어요. 김건희도 감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모두 다 기소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내란 종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상계엄을 해제하려 들어오지 않았는지, 여기에 들어와서 버튼 누른 사람 누구입니까? 비상계엄 해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우니 김현지를 찾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민주당 관계자, ‘설주완은 자기가 그만둔 것이다’. 이화영 녹취, ‘설주완, 검찰 측 요구 적어 와 나를 설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상용 검사와 변호사의 유착 관계가 어제 국민의힘 질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박상용

검사와 그리고 검사의 이야기를 이화영 의원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전달한 변호사와의 유착 관계, 박상용 검사가 어제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변호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여러분이 질의 잘했어요, 아주. 박상용 검사가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화영에게 진술세미나를 강요했는지 어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꼭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잘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어제 나와서 술술 불던데요. 이화영의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박상용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술술 불었어요. 거기에 이화영 의원이 쪄기를 딱 꽂았어요, ‘변호사가 와서 검사가 요구하는 걸 저에게 요구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온 세상에 낱낱이 나왔으니 국민의힘과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낱낱이 찾아봅시다.

위원장님, 염희준·남욱의 증인 추가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목소리 크다고 가짜가 진실이 안 돼요.

○서영교 위원 두려워요, 내가 말한 게?

○송석준 위원 목소리가 크다고 가짜가 진실이 안 돼요.

○서영교 위원 송 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송석준 위원 서 양치기.

○서영교 위원 송 양치기, 셋 더 마우스.

○나경원 위원 회의장 질서 좀 유지시켜 주세요. 3분 넘게 서영교 위원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어제 국힘 위원들이 국감장에서 혐의 검사랑 짬짜미, 국감장 난장판 작전 잘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무죄 만들기, 윤 어개인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판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국감장 현장에 왔다. 다시는 대선개입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오늘 현장에 와서 반드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숙원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실상 국민의힘 윤 어개인 공작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호사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단해서 ‘이

변호사 아니다, 저 변호사 선임하면 좋겠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자 당사자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또 해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제삼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망발입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 국감장에 국감거리나 되는 것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이 재명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려는 그런 작전 아닙니까? 공작 아닙니까?

변호사가 아이입니까? 법률적 판단을 하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결정해서 판단하고 변호를 하는 것을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버젓이 본인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짜고 국감장을 난장판 만든 것이 어제 그 국감장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검사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힘과 짜고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감장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될 악습이고 구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자중하시고요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오늘은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시고 국감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시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 의견 있다니까요. 왜 자꾸 종결합니까? 의견 있다고요.

○위원장 추미애 두 분 두 분씩 하기로 했지요.

○김기표 위원 2명씩 하기로 했으니까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누가 동의를 해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왜 송석준 위원님은 두 번 손을 드십니까? 아까 찬성에 손을 드시고……

○신동욱 위원 지금 농담이 나옵니까? 누가 누구 손을 들어요, 지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중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신동욱 위원 손 안 들어. 거수기야 뭐야? 위원장이 들라고 하면 들고 말라면 말아야 돼? 기계를 데리고 와서 국감 하세요, 기계 데려와서. 그렇지 않아요, 박균택 위원님? 손 드는 거수기냐고, 그쪽은.

○박균택 위원 옳으니까 듣 겁니다, 옳으니까.

○신동욱 위원 뭐가 옳아요, 옳기는?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박균택 위원 증인 채택 가지고 하루를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신동욱 위원 길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증인 채택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면 그 정도는 수용을 해 주는 게 서로 기본 예의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발언권 좀 주지. 주진우 위원 대신 발언권 좀 주지.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떠드는 분들 시간 재서 발언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이게 무슨 방해예요. 할 소리도 못 합니까?

○신동욱 위원 당신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 아니고? 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최혁진 위원 인격 모독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국회의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먼.

○신동욱 위원 말만 나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 위원 대법원장 모욕을 해 가지고 온 동네에 창피를 당하고, 국회 수준 떨어트려 놓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더 센 초선이 왔잖아.

○신동욱 위원 야당이잖아요, 저쪽은.

○서영교 위원 진작 더불어민주당 주지, 안 주니까 더 센 초선이 왔잖아.

- 신동욱 위원**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저 사람들? 민주당이냐고요, 저분들.
- 나경원 위원** 제발 민주당 입당 좀 시켜 드리세요. 민주당은 입당을 시켜 드리세요, 최 위원님 민주당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 신동욱 위원** 민주당 가고 싶어 하는 분들 다 받아 주세요. 왜 안 받아 주냐고.
- 서영교 위원** 신동욱 잡는 더센 초선이 왔어.
- 김기표 위원** 입당하실 생각이 없어요.
- 나경원 위원** 아니, 민주당 가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보내세요. 입당시켜 드리세요.
- 최혁진 위원** 수준 떨어지는 국감 하지 마세요! 국감에 집중하세요.
- 조배숙 위원** 누가 할 소리야?
- 장경태 위원** 윤석열 복당부터 받아 주세요, 그러면.
- 서영교 위원** 어머, 그러려고 그런대?
- 신동욱 위원** 무슨 맥락 없는 얘기를 맨날……
- 장경태 위원** 윤석열 복당이나 받아 주세요, 저희가 받을 생각 없으니까.
- 신동욱 위원** 발언권 달라 그러는데 맥락 없는 비아냥 자꾸 하지 마세요, 장경태 위원. 우리가 발언권 달라 그랬지 누가 무슨 딴 얘기 했습니까?
- 장경태 위원** 아니, 왜 최혁진 위원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 하셨구먼. 여기가 무슨 국민의힘 위원님들 독무대입니까?
- 신동욱 위원** 할 말 없으면 윤석열이고 내란이냐고.
- 장경태 위원** 여기가 독무대예요? 두 분씩 하셨으면 됐잖아요, 각 교섭단체에서. 그러면 비교섭단체도 의사진행발언 줘야지요.
- 조배숙 위원** 아니, 송석준 위원은 받은 게 아니에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할 동안, 이런 소란을 할 동안 신동욱 위원님한테 발언권 주셨으면 되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창피해 가지고 국감을 못 하겠네.
- 장경태 위원** 다 하려고 그래, 다. 저희도 소중한 시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신동욱 위원** 하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지.
- 김용민 위원**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우리.
- 장경태 위원** 밤도 못 새우시면서요, 맨날 퇴장이나 하셨다가 이제 와서……
- 송석준 위원** 남의 집에 와서 예의 좀 지킵시다, 우리 서로.
- 장경태 위원** 저희 감사하러 왔습니다, 뭘 남의 집입니까. 피감기관에 감사위원들이 왔습니다. 구분도 못 하십니까?
- 송석준 위원** 추한 모습 여기서는 좀 자제합시다. 집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줘도 여기서는, 이건 좀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 서영교 위원** 시작을 송석준 위원이 하셨잖아.
- 신동욱 위원** 그거 1명 주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다고……
- 서영교 위원** 미꾸라지처럼 이번에는 또, 자기가 해 놓고.

○위원장 추미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0인 서면동의)

(10시44분)

○위원장 추미애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동의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뭡니까? 전원합의체…… 이게 무슨 기록이에요? 2025도4697 사건이 뭡니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 아닙니까? 이것 설명을 해야지 사건번호만 적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열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게 명백히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 103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위반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좀 위원들이나 들어오면 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위원장 추미애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급해도 위원들이나 좀 들어오고 하세요.

○나경원 위원 이렇게 맨날 날치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신동욱 위원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표결을 합니까? 위원들 들어오라고 공지라도 한번 하고 표결하세요.

○나경원 위원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인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서류가 무슨 관련 서류인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이것 이재명 대통령 사건일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재판에 개입하려고.

○조배숙 위원 이게 뭐예요?

○신동욱 위원 그리고 화장실 간 사이에 이게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 서류가 무슨 관련된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현희 위원 윤석열 무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윤 어게인입니까?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이 사건이 뭔지 설명을 하고,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현희 위원 윤 어게인 당입니까?

○신동욱 위원 더 위험한 건 이재명이에요.

○전현희 위원 윤 어게인 당.

○신동욱 위원 이미 감옥 가 있는 사람 뭘……

○나경원 위원 이것은 의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가 할 수 없는 일. 의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재명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나 들어오면 표결하자고요.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저 반대해요.

○나경원 위원 반성하세요, 민주당 위원들.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판에 간섭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국회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박은정 위원 또 난장판 만드시려고 그러나 보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판결 서류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요, 판결 서류를 내놓으라는 게?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야.

○위원장 추미애 한 번 더 고지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손이나 드세요.

○나경원 위원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서류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안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쇼예요, 뭐 하는 쇼?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우리가 거수기냐고!

○박은정 위원 손이나 드세요, 손이나.

○김용민 위원 안건 토론 때 하시든가요.

○곽규택 위원 아니, 설명부터 하세요, 설명부터.

○김용민 위원 안건 토론 때 하시라고, 안건 토론 때.

- 나경원 위원 이걸 왜 올리느냐고요, 왜 올려?
- 김용민 위원 안건 토론 때 하시는 거라고.
- 곽규택 위원 이게 무슨 기록인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설명도 안 하고.
- 신동욱 위원 판결 서류를 왜 달라고 그래요, 판결 서류를?
-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 조배숙 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우리 증인은 안 받아 주면서 이것만 날치기하는 거예요, 또?
- 나경원 위원 우리 증인과 검증 동의는…… 이것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뭐.
- 전현희 위원 윤석열 무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 나경원 위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왜 설명을 못 합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지요?
-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경원 위원 왜 설명을 못 합니까?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찬반 투표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조배숙 위원 뭐 하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사건 설명부터 하세요, 사건 설명이 뭔지.
- 나경원 위원 적당히들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송석준 위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판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 나경원 위원 이것은 폭거 중의 폭거입니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민재판.

2.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48분)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조배숙 위원 이것 재판 간섭하는 거예요.
-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 나경원 위원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 송석준 위원 이게 무슨 만행입니까? 도대체 재판 개입을 하겠다는 안건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 나경원 위원 이렇게 사법부를 국회가 마음대로 혼들어도 됩니까?
- 조배숙 위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이것 만행입니다, 만행! 만행이에요, 만행!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서류라도 좀 제대로 만들든지 볼펜으로 밑줄 찍찍 그어 가지고……

기자분들 좀 보세요, 이것. 얼마나 급했으면 서류에 밑줄 쭉쭉 그어 가지고, 이걸 지금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의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이것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야?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뭔지.

○**나경원 위원** 아니, 내용도 모르게 이것 뭐 하는……

○**송석준 위원** 국정감사장에서 재판 개입을 하는 것도……

○**장경태 위원** 아니, 이것은 끝난 판결이잖아요, 끝난 판결. 재판에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끝난 판결인데? 제대로 재판했는지 감사하자는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내용도 모르게 이것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송석준 위원** 국정감사법에 명시돼 있어요? 어떻게 재판 개입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

○**나경원 위원** 민주당 위원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장경태 위원** 끝난 재판에 이미 판결문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구체적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송석준 위원** 불법이에요, 불법!

○**장경태 위원** 진짜 윤 어개인입니까, 국민의힘? 대선 불복이에요? 윤석열 복당이나 시키세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 이거 왜 토론 안 해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이것. 볼펜으로 줄 죽죽 그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여기 도장도 안 찍었어요. 서류도 문제야, 서류도. 서류도 문제예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서류도 문제야, 서류도 문제라고요. 볼펜으로 줄 찍찍 그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

금.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토론하시라고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즉각 철회해 주세요! 재판 개입을……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날림으로 이게 뭡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이건 끝난 판결인데 무슨 개입을 하냐고요, 끝난 판결을. 제대로 판결했는지 감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토론하시라고, 들어가서 자리에서 토론하시라고.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내용이라도 설명하세요, 내용이라도.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설명을 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무슨 기록이에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볼펜으로 죽죽 긋고 이게 되냐고요, 이게.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앓아서 토론하시라고요.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설명이 뭐예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내용이라도 설명하세요.

○서영교 위원 토론을 해야 하나요,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건 토론.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하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불법 서류예요, 불법 서류.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건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올려요? 판사 출신의 법사위원회 맞습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재판이 끝났는데 어떻게 간섭하냐고요, 끝난 판결인데!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의견을 말하게 주세요, 의견을.
-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추미애 위원장, 이게 뭐예요, 이게?
- 서영교 위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왔습니다.
-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동료 위원들을 불법행위에 동참시킵니까? 민주당 혼자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토론해요, 토론. 토론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진행 방해입니다.
- 서영교 위원** 법원에서 4월 24일 과기환경 표결이 있었습니다.
- 조배숙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토론하게 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옆에서 같이 공범을 만드세요?
-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뭐예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토론하게 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를 공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앉아서 토론하게.
-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들어가세요.
- 김용민 위원** 들어가서 토론하시라고요.
- 서영교 위원** 모든 분들 사진 찍어 주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나경원 위원** 협박하지 마세요.
- 조배숙 위원** 협박하지 마세요.
- 송석준 위원** 공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십시오, 토론. 토론하십시오.
- 서영교 위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신동욱 위원** 서류가 이게 뭐냐고요, 볼펜만 찍찍 그어 가지고.
-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박지원 위원** 앉아.
- 곽규택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뭐야, 이게.

- 서영교 위원 국민의 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주진우 위원 한심스러워서, 진짜.
-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 정신 차려요. 범죄를 하려면 혼자 하세요, 혼자.
- 서영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하지 마시고 자기가 토론하고 싶은 시간에 토론을 하세요.
- 송석준 위원 어쩜 이런 범죄행위를 합니까? 범죄행위를 하지 마세요. 우리를 엮어서 범죄 공범을 만들라 그래.
-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 품위를 지켜 주세요. 질의 좀 합시다. 안건 토론 좀 합시다.
- 조배숙 위원 해요, 해!
-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대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이 올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모두 법원을 지켜보고 법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국정감사가 있을 때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조배숙 위원 절차에 맞게 지적하세요!
- 서영교 위원 오늘 서류를,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 조배숙 위원 설명이나 제대로 하고 하시라고요.
- 서영교 위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송석준 위원 그게 재판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 왜 개입을 합니까, 법사위가?
-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구속취소시켰던 법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송석준 위원 재판 개입이에요, 재판 개입.
- 서영교 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 1심, 3심 과기환송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에 개입합니까?
- 송석준 위원 재판 관련 서류를 갖다가 뒤져 보고 따져 본다는 것이 재판 개입이지 뭐예요! 말이 안 되는데, 상식이 없어!
- 서영교 위원 여보세요, 이게 끝났는데 무슨 재판에 개입해요?
- 나경원 위원 아니, 확정 안 됐습니다. 판결 확정이 안 됐잖아요!
- 서영교 위원 지금 재판은 중지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 나경원 위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
- 송석준 위원 초선이에요? 법사위 처음 해 봐요? 도대체 이런 재판 관련 서류를 따져 보는 게 재판 개입이지 뭐예요! 도대체 법 상식이 없이 어떻게 법사위원 자격으로……
- 장경태 위원 초선이면 서면동의도 못 받아요?
- 서영교 위원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송석준 위원 그게 재판 개입이지 뭐예요?
- 서영교 위원 그거 요구하는데, 전산 기록, 로그인 기록 요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봤는지 요구하는데……

○송석준 위원 그게 재판 개입이지.

○조배숙 위원 그게 개입이지요.

○서영교 위원 이보세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재판 과정을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법사위원 맞아요?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

○서영교 위원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직도 보호하려고 그리고 재판 전원합의체가 사법 쿠데타 한 것을 옹호하려고, 그러려고 법사위 왔습니까?

○조배숙 위원 자꾸 김건희 얘기하지 마세요. 할 말 없으면, 자꾸 윤석열 얘기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법사위 위원이면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무슨 4선 의원이에요, 4 선 의원은.

○서영교 위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자료를 요구해 줄 것을 요구드리며 이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경고 주시고 그리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치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 법사위에서 나가세요. 그렇게 위법적 행위를 뻔뻔하게 하려면 법사위에서 사퇴하세요.

○곽규택 위원 토론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 기회를 다 주세요. 토론 기회를 저희 국민의힘에 다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의 기회를 다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토론 기회 드릴게요.

먼저 손 드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렇게 난장판을 벌이는데 무슨 토론의 기회를 주십니까, 난장판을 벌이지 말고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경원 위원?

○신동욱 위원 독백 그만하세요.

○곽규택 위원 지금 또 느닷없이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볼펜으로 막 두 줄씩 그어 가면서, 여기에 어떠한 도장도 없고, 이런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요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말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서류제출 요구한 목록을 보면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시, 제출 경로, 보고서 제목, 분량, 보고서 작성·검토 시 사용한 내부 업무시스템 로그 기록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이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제출하라, 이것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취지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사건은 재판중지가 돼 있는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지요. 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 서류제출 요구 목록이. 그러면 이것은 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해 가지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대법원 재판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삼권분립을 위반하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죄 취지 평가환송된 것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데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언제든지 재개돼 가지고 진행된다면 그때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서류제출 요구 못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이런 서면동의에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저희가, 사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에 대한 감사 또 해당 상임위로서의 질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핑계를 들어서 저희 정당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현재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국정조사법이 정하는 상임위 의결로 국정감사 실시계획까지 의결하고 심지어 대법원의 현장 시찰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전원합의체 재판과 연구한 검토 기록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재판의 개입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입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이틀이든 7일이든 다 사건 기록 보고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먼저 하게 돼 있어서……

○신동욱 위원 지금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보셨는지, 서면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전산 기록을 보셨는지 로그 기록을 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사건 기록 제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일체를 요구한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연구관,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되어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관들은 그러면 사건이 이첩된 3월 28일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을, 독립적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 법사위가 확인코자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또 국정감사가 요하는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기 때문에 서면동의에 대해서, 저는 사건 기록 대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동의서가 무조건 필요하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부의 독립 또한, 공정한 재판 또한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또 다른 사법 내란의 일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서면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우선 위원님들께 열람할 시간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뒷장의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보시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판 내용이나 심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관여하는 게 아니면 뭐가 관여하는 겁니까? 이게 뭐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관여한다는 거지.

○신동욱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관여하는 거지 이게 뭐가 아니에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관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위원장 추미애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오늘 대법원의 현장 국감을 시작할 때 국민의힘에서 오늘 국감이, 이 현장검증이 ‘날치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교섭단체인 박은정 위원과 저도 강력하게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싸잡아서 민주당 위원들과 비교섭단체 위원 전체를 날치기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중으로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면동의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고 그런 의혹이 지난 파기환송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흥결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악다구니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합니다.

첫 번째로 왜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대한 정확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고 대법원을 비호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가, 저는 지난번에 나경원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규택 위원 무슨 헛소리야!

○최혁진 위원 법원장으로서의 인사에서 대법원장에 도움을 달라고 지금 대법원 국감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인사 청탁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최혁진 위원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고 동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

사를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본인들을 방어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 이겠지요. 그래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감 방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해 주시고 반복된 방해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까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대법원이 정상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회가, 우리 법사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일체의 아량도 베풀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오늘 국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도요토미 위원은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 먼저 하시고 국감장을 이상한 동네로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이렇게 무너트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 넣어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이렇게 무너트릴 수 있습니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헌법가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재판이 끝났다고요? 이 재판은 파기환송 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로그 기록이니까 재판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요? 이 내용 보십시오. 재판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이것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 관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질서 안에서, 헌법 안에서 우리의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각자 해야 될 삼권분립의 그러한 견제와 균형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사법부,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법치의 심장인 대법원에 와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저희 입법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대법원을…… 지난번에 한번 국감하면서 대법원장 조리돌림하고 그리고 합성사진하고 온갖 악마화·희화화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춥시다.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 보여서 되겠습니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법상 권력인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더 이상 억지 부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럴수록, 혹시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유죄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놔둡시다.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해서 이재명 재판 무죄 만들어 내라고 육박지르는 것은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민 이렇게 평화로운 회의를 폭동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논평하지 마세요.

○신동욱 위원 그쪽도 똑같은 톤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쪽에 대해서만 자꾸 논평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저쪽도 그러면 같이 하시든지.

○위원장대리 김용민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지원 위원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과유불급, 과하지 마라 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잊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 같은 동생 같은 동료 위원들이지만 똑같은 위원님들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조용히 해’, ‘끼어들지 마’ 이것은 상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망신을 주고, 공개적으로 주고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하면 ‘알았어’ 이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저는 나경원 위원님의 발언 때 듣기 굉장히 거북했지만 우리 민주당 위원들에게도 ‘자제하자’, ‘끼어들지 말자’ 했습니다. 저부터 자제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발 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보십시오.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우리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내란 부두목 한덕수 영장을 기각시키더니 어제 박성재 법무부장관 영장도 기각시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CCTV가 말해 주는데도 기각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왜 저럴까? 저러다가 다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엄이 선포되자 우리 5200만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모여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법원 태도 보십시오. 합법적인 계엄이었으면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 이런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내란이! 막을 것은 막아야지.

자제합시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또 집을 나와서, 대법원에 와서 현장 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비용도 아끼고 우리 국감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첫날 잡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대법원까지 나오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뭔가 제대로, 우리가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던 질의를 좀 하기 위한 그런 보충 국감이 아니라 어쩌면, 분명히 대법원장께서도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무리한 현장 국감을 오늘 지금 하고 있다

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부터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법원 입구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그때는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번 서면동의서 안건을 보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와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감, 여기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뭐뭐 지웠어요,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2025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리고 ‘심리 및 판결과정’이라는 말은 지웠어요,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제429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 또는 판결 과정에 관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정감사의 근거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에 국정감사법이 정하는 이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국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회법 37조에서 이렇게 정하잖아요,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료 요구한 이런 것들 있지요, 구체적인 재판 심리·판결 사항. 이것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입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판사 출신으로서 이거는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발 우리가 이렇게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국감 대상이 아닌 이런 행위를 또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왜냐면 이것은 명백하게 대법원을, 사법부를 정말 조롱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에도 정면 배치되고, 국감법에도 배치되고, 국회법에도 배치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귀한 시간을 정말 소진해 가면서 또 바쁘신 대법원의 많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즉각 이 무모한, 무리한 현장 국감을 중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신동욱 위원 저도 미리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추미애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하시지요.

○신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지금 오전 국정감사가 대법원이 바라는 바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과행. 거기에 국힘 위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큰 것 같네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보통 국정감사 쉬는 날이에요. 어젯밤은 10시에 끝났지만 그저께 밤은 자정까지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었지요. 그 경위를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님의 답변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대법관들이 서면을 다 봤다는 것인지 봤으면 종이 기록으로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PDF 파일로 뜯은 서류를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은 읽지도 않고 의견서만 봤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나 국힘 소속 위원님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느니 삼권분립 위반이니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 사법부가 더 이상 사회의 최종 심판자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부의 가장 큰 위기고 국가 전체의 위기며 궁극적으로 사법권 독립의 위기고 삼권분립 이념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법 쿠데타라고 속칭되는 2025 도4697 사건, 이것은 더 이상 사법부가 최종 심판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가장 명징하게 보여 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례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서는 진행 중인 사건 개입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그 왔다 갔다 하는 발언 중에, 대답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도대체 사실인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한번 대충 지나가고 ‘사법권 독립, 독립’ 외치면서 숨으면 된다는 선례가 남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부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우리 미래세대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법 내란 아닙니까? 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민주당의 법률가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들여다봐도 되고 그게 아닌 것은 지켜 줘야 된다 이런 예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된 2심 재판, 저희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법리라는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 2년 2개월 걸린 것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저희도 그 2심 재판부의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불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국회 청문회장에 불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심 재판부, 뭘 하느라고 2년 2개월 동안 1심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민주당의 정의만 정의입니까? 민주당의 정의만 사법부 독립의 예외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입법 쿠데타고 입법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선출 권력’, ‘선출 권력’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국회의원들 몇 표 받아서 당선됐습니까? 그 선출 권력이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선출 권력이 사법부 독립의 예외가 된다라는 이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제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 자제해야 됩니다. 저도 목소리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참는 것입니다. 진행을 원만하게 하면 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발언권 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중인 단 한 명이라도 채택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민주당 위원 얘기할 때 한없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으시다가 저희 당 위원 얘기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고, 이게 지금 자제입니까?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웃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희들. 적어도 진행을 공정하게 해 주시면 이런 큰소리가 날 일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와서 왜 우리가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지만 무엇보다도 설주완 변호사 왜 못 부릅니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그러시더군요, ‘샤넬 백을 받았습니까? 양평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그분이 양평고속도로에 벼금가는 분이라는 것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설주완 변호사 불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랬냐고 따지세요. 왜 안 불러 줍니까?

그래서 진행을 공정하게 하시고 목소리 좀 낮추시고 협의하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만드실 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도장만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조국혁신당 두 분하고. 저희 당 위원들에게 사전에 물어보시고, ‘우리가 이것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자제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의 토론 중에도 제가 미소를 지어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국민은 누구도 대법원에 대통령선거 한 달 앞두고 대통령후보를 없애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삼권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입니다. 그것을 묻는 국민들께 법원행정처장님이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너무 답변을 오락가락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문서화되고 이 사건은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저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화되고 스캔해 잤다니까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내놓고 있어요. 종이 기록으로 복사했는지, 그 종이 내용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장에 와서 그것을 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지난 법사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여기 현장에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알게 됐다. 이런 것 하는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좀 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찬성은 했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접수되는 모든 사건이 전원합의체라고 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 작년에 2만 4044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2만 4044건이 대법원에 오자마자 대법관들이 전부 다 일제히 기록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전합 사건이라고 하니까요, 회부절차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민이라면 2만 4044건을 모두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저는 그것 알고 싶어요.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이 사건도 궁금한데 저 2만 4044건을, 대법관들이 받는 자료를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것 포함해서 저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데 다만 오늘은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이것 서류제출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 오늘 2만 4044건을 대법관들이 접수되자마자, 전부 다 전원합의체니까 국민들의 사건을 봤다는 그 입증 자료를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봤으니까 기일이 잡힌 사건들은 모두 이를 만에 판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이제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좌우로 돌아가시지요.

조배숙 위원님 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차 얘기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요청을 해도 또 토론을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것을 종결 제의를 받아 가지고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현법기관입니다. 토론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 의견을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나경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어요. 하니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주질의 마치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자꾸 비난할 것이 아니라 회의 운영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지금 자꾸 우리한테 ‘입법부가 선출 권력으로서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헌법은 입법·행정·사법 다 ‘누가 우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법 권력이 입법 권력처럼 선출돼서 한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공정성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보면 결국은 오늘 이 서면동의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딱 이걸 내놓고.

그리고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요 볼펜으로 지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웠는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서면입니까? 정정을 하면 여기다 도장 찍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상임위 구조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원하는 대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대한 부분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위법이고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내란 동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리 비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제로 상대를 규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저는 야만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좀 공평하게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철회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3분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듭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 국민의힘이야 말로 내란으로 헌법질서를 망가뜨린, 파괴시킨 주역이고 당사자입니다.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다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익숙한 공작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의 말씀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모험에 대법원장

이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또 하나,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다라는 의견을 냈다. 피고인인 이재명의 몇 년 전의 발언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윤석열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 묻고 싶다’.

또 하나, 청주지법 판사의 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에 불과 이틀 만에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이 후보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소부 배당한 이후에 즉시 전합에 회부했다. 1·2차 합의 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이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단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법 불신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에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자중하시고 사법부 내부의 의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셨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 오늘 현장 국감이고 저희가 현장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하고 온 상태에서 법원이 현장검증 직전까지도 검증 대상이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장 국감과 현장검증의 피감기관 대상인 법원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편 국감법 8조와 관련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그래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라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회법해설서입니다. 국회법해설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753페이지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공조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해설서는 분명하게 작성해 가지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쿠데타다라고 규정지으면서 국정감사를 하고 현장 국감을 하면서 현장검증까지 하는 것은 국정감사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정감사법 제10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위원회가 의결로 서류 등의 제출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류제출 목록을 바로 이 10조 2항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4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의 증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구체적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자료 배부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전혀 아니고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2025도4697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사건번호는 2025도4697, 기간은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상고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에 대하여 또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접근 로그 전체 또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조회 이력 전체 또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반납 서면 기록—열람대장을 포함합니다—또 기록 열람·검토 관련 내부지침, 이는 내규·업무처리기준 등이 포함되며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사본 또 2025년 5월 1일 이후 전산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여부에 대한 내역.

두 번째,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은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도4697 사건에 배정된 재판연구관 명단 및 소속 부서에 관하여 또 재판연구관이 사건 기록을 처음 열람한 일시 및 검토 기간에 관하여 또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접근 로그 전체에 관하여 또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조회 이력 전체에 관하여 또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반납 서면 기록—열람대장을 포함합니다—에 관하여 또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시, 제출 경로—소속 대법관, 부

단위 등도 포함됩니다—또 보고서 제목, 분량, 결재·회람 경로,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사본 또는 목차 형태로 제출 또 보고서 작성·검토 시 사용한 내부 업무시스템 로그 기록에 관하여 서류제출 목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현장검증을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김용민 위원 아니요, 해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탈탈 털어 가지고 그냥 압수수색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나경원 위원 그러면 현장검증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의견을 더 얘기……

○김용민 위원 이것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현장검증 할 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아 의결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 이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토론 종결 이의 있다고 했어요.

○송석준 위원 이의 있지요.

○신동욱 위원 이의 많습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에 이의 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송석준 위원 이것은 합의가 안 됐잖아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법사위에 치욕스러운 오명을 남깁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 토론 종결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찬성 동의가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에 따라 대법원은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그때 자료 요구를 신청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일반증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27.(월) 대검찰청	쿠팡 사건 관련 검찰 해체 관련	추가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남 옥	변호사	10. 27.(목) 대검찰청	법정 증언 관련 대장동 개발 이익 편취 의혹 / 로비자금 및 정치권 연루 관련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이은정

임시회의록